

'5인 금지' 무슨 소용...강원랜드 '우르르'



최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지난해부터 휴장에 들어갔던 강원랜드 카지노가 15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낮추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했는데, 강원랜드가 '매장 내 인원 1200명으로 제한'이라는 조건 아래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럼 5인 이상 집합금지 는 왜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영업을 시작한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오전 11시 기준 300여명이 입장했다. 일일 입장 가능 최대 인원은 1200명이지만, 입구에서 발열검사 등을 진행하는 만큼 대기 인원의 입장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카지노 입장을 위해 강원

랜드가 사전에 진행한 1200명분에 대한 입장권 예약은 전날 이미 마감됐다.

뉴시스가 전날 오후 6시30분께 강원랜드 대표 번호를 통해 카지노 입장권 예약을 시도했지만 "이미 끝났다"는 안내가 나왔다.

강원랜드 측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으로 ARS 당첨 및 입장 대기 당첨 고객만 입장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영업장 내 체류 인원을 1200명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테이블 게임은 텍사스 홀덤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이날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카지노 입장 예약권 사전 예약, 전날 마감

일 평균 이용객 8000명의 20% 입장 가능

시민 반발...“설엔 가족도 못보게 하더니”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 사적모임 아냐”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긴급 휴장을 실시했던 강원랜드는 이날부터 하루 평균 이용객 8000명의 20% 수준인 1200명을 대상으로 다시 제한적 영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했지만, 카지노 이용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1200명의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수도권인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업종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제한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500명 이상의 모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카지노 재영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하면서 카지노 운영은 허용하는 정부 지침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직장인 신모(33)씨는 "5인 이상 모임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설 연휴에는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더니, 1200명이 모이는 카지노 영업은 괜찮은 것이냐"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한 네티즌은 "마스크를 착용해도 5명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강원랜드는 무슨 성역이길래 1200명씩 집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1200명이 모이는 도박장은 허가해주고, 일반인 5명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는 거리두기가 2단계 수준이어서 휴장을 했었는데, 다시 1.5단계로 하향돼서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라며 "카지노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1200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사적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선욱 기자

'막무가내 환불 요구' 터미널서 난동 부린 50대 실형

터미널에서 환불할 수 없는 승차권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던 중 역무원들에게 욕설·폭언하고,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의 목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산 열차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했는데,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해달라며 생떼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8시 17분께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기간이 경과한 버스표를 환불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2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말 안 듣는다고' 지적장애 가족 마구 때린 50대 집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광주 지역 주거지 등지에서 40대 아내 B씨와 20대 아들 C씨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악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C씨에게도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뺨과 등 부분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를 다시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발바닥을 쟤가봉 손잡이로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B씨와 이혼해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서 음주 차량 신호등 들이받아...40대 연인 사상

광주에서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숨지고 운전자는 다쳤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장수동 한 도로에서 A(48)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42)씨가 숨졌다. A씨도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설 앞두고 노모에 흥기 휘두른 40대...“도주우려” 구속

설 연휴 전날 60대 어머니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받는 A(42)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8분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원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무직인 A씨는 B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과 어깨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2명 확진' 광주 한 종합병원 입·퇴원 환자 등 전수검사

밀접촉자 4명 음성...대체인력 투입해 운영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료인 2명이 서울 순천향대병원 확진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가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입·퇴원 환자까지 전수검사를 벌인다.

병원은 선별검사소를 제외하고 응급실과 외래진료 등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 운영한다.

15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

실·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대해 긴급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의료인과 환자 등 접촉자 62명을 파악했다.

이중 밀접촉자로 분류된 4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5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방역당국은 병원에 대해 현장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들이 설 연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응급실 간호사는 지난 13일까지 근무했으며, 임상병리사는 10일 이후부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병원내 감염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의료진과 종사자·환자 등 27명을 2주 자가격리, 77명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의료진 2명이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해 역학 조사 범위를 넓혀 접촉자를 파악했으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의료진과 종사자 195명과 입·퇴원 환자 95명 등 290명에 대해 16일까지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병원은 선별검사소 운영만 폐쇄했으며 의료진 일부가 자가격리됨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해 응급실과 외래진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